

#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

재정 보고서

앤지 앤드리어트 박사  
수전 바넷 박사  
2021년 3월



RESEARCH  
SERVICES

# 왜 모든 미국장로교 목회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왜 지금인가?

성도, 교회 직원, 중간공의회, 교단 지도자들은 리서치 서비스에 목회자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어려웠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페리 장 박사가 이 작업을 맡았다. 이 보고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것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하고 있다. 새 설문조사는 소수인종 성직자, 은퇴한 성직자, 이중직 목회자, 위임받은 사역 장로, 파트 타임 목회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이 초유의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의 성공은 많은 협력 기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협력기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연금국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Call to Health이 건강 증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었다.
- 출판국은 이 설문조사를 마치는 모든 이들에게 향후 구매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총회사무국, 선교국, 재단국의 의사소통 담당 직원들은 설문조사 링크를 포함하는 여러 이야기를 쓰기도 했다.
- 총회 중간공의회 관계 사무처 대외 담당 직원들은 해당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해 홍보했다.
- 교단 차원의 몇몇 위원회는 설문조사 링크를 그 구성원과 공유하였다.
- 모든 기관의 데이터 그룹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하고 미국장로교의 데이터와 데이터 보고서를 논의하고 개선했으며,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해나갔다.

왜 지금인가? 교회가 그 답을 알고 싶어 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 수전 바넷 박사

리서치 서비스 디렉터  
행정 서비스 그룹  
미국장로교

## 개요

미국장로교 목회자 설문조사는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 실행한 110개 문항의 방대한 설문조사이다. 우리는 주소를 확보한 모든 목회자에게 우편엽서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도록 부탁드렸다. 이 설문조사는 또 연금국의 Call to Health 도전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연금국의 협력 덕분에 응답자의 절반이 확보되었다.

교단의 19,243명 (n=4,495)의 목회자 중 23%가 설문에 응답했다.

본 보고서는 목회자의 재정 상태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제공한다. 이는 목사 및 특별 사역 목회자와 명예 퇴직목회자에 대한 재정 상태를 조사한다.

보고서는 소득, 부채, 주택 및 은퇴 기금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06** **목사:** 목사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조사

**14** **특별 사역 목회자:** 목사가 아닌 특별 사역 목회자와 이중직 목회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조사

**18** **퇴직 목회자:** 현직에 있는 목회자의 은퇴를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명예 퇴직한 목회자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가?

**27** **주택과 부채:** 현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주택 및 부채 상황에 대한 조사

**32**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정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안수받고 여러 분야에서 사역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직위는 목사를 비롯하여 중간공의회 지도직, 전국적 기구의 지도직, 교도소, 군대, 병원의 목사직, 교직원/교육자, 혹은 공익종교단체의 직원 등 여러 형태로 전문화된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일컫는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목회자들의 복지에 대한 편차를 조사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의 소명과 고용상태별 결과를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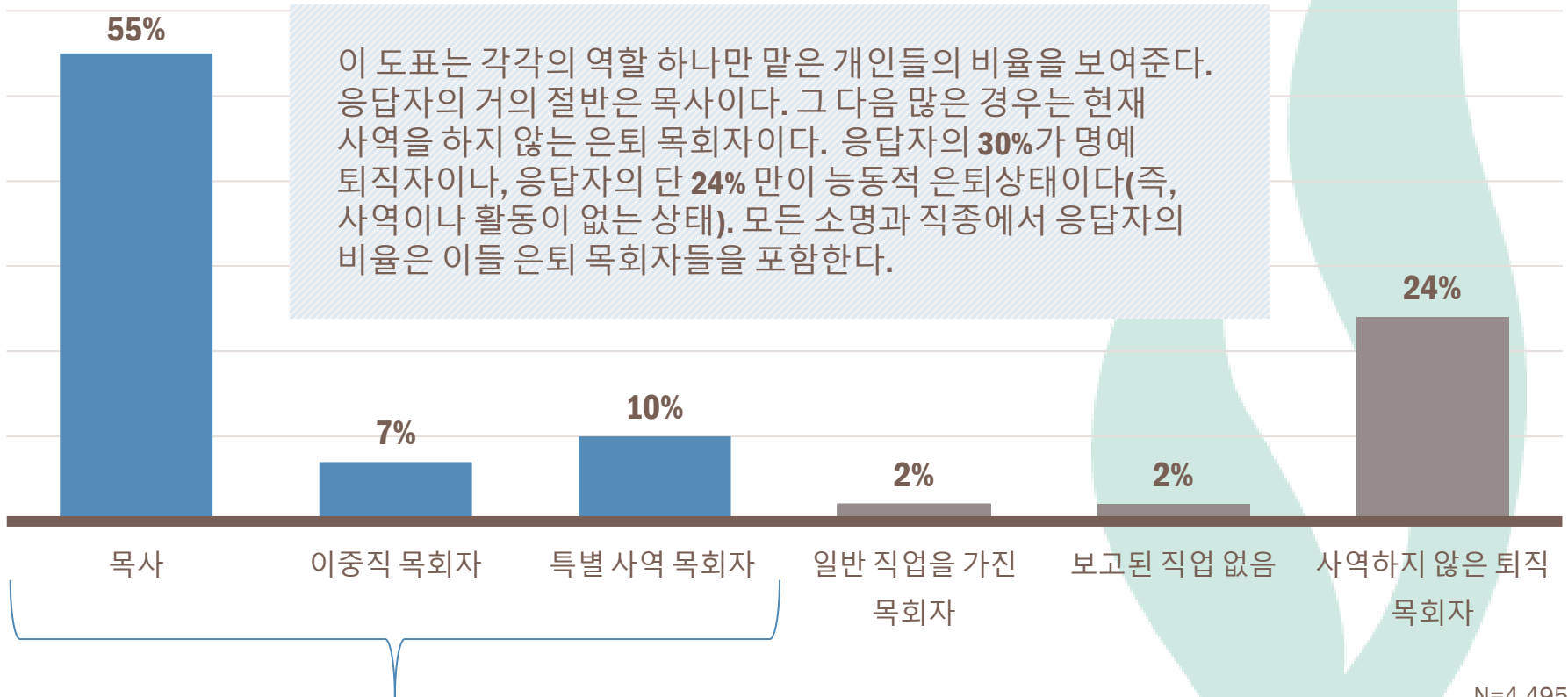
- **목사** -담임목사, 공동목사, 부목사, 임시 목사, 설교 목사, 개척 목사로 취임한 경우
- **특별 사역 목회자** - 회중을 이끄는 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역을 맡은 목회자. 교도소, 군대, 병원의 목사직이나 상담 목회 등이 있다.
- **이중직 목회자** - 일반 직업을 가진 동시에 사역을 하는 목회자
- **은퇴 목회자**- 현재 사역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노회에 명예 퇴직자로 보고되는 목회자
- **일반 직업을 가진 목회자**- 목회 안수를 받았으나 현재 사역을 하지 않는 목회자

# 목회자의 여러 가지 역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목회직 수행을 위해 안수받는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목사를 비롯하여 중간공의회 지도직, 전국적 기구의 지도직, 교도소, 군대, 병원의 목사직, 교직원/교육자, 혹은 공익종교단체의 직원 등 여러 형태로 전문화된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일컫는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분류 체계를 목회자들 사이 복지의 편차를 조사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의 소명별로 결과를 조사한다.

- **목사** -담임목사와 공동목사, 부목사, 임시 목사, 설교 목사, 조직 목사로 취임한 경우
- **특별 사역 목회자** - 회중을 이끄는 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역을 맡은 목회자. 교도소, 군대, 병원의 목사직이나 상담 목회 등이 있다.
- **이중직 목회자** - 일반 직업을 가지는 동시에 사역도 하는 목회자
- **은퇴 목회자** -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노회에 명예 퇴직자로 보고되는 목회자



# 목사

응답자의 60%에 해당하는 2,706명은 현재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목사 중 94%에 해당하는 2,534명은 아직 “은퇴” 상태가 아니다.

본 섹션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2,534명 목사의 보고된 수입, 부채, 재정적 문제, 주택 상황, 은퇴 관련 문제를 조사한다. 이는 목사로만 봉직하는 이들과 목회직과 더불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중직 목회자를 포함한다.

현재 목회 활동 상태의 여부와 관계없이, 은퇴한 응답자는 별도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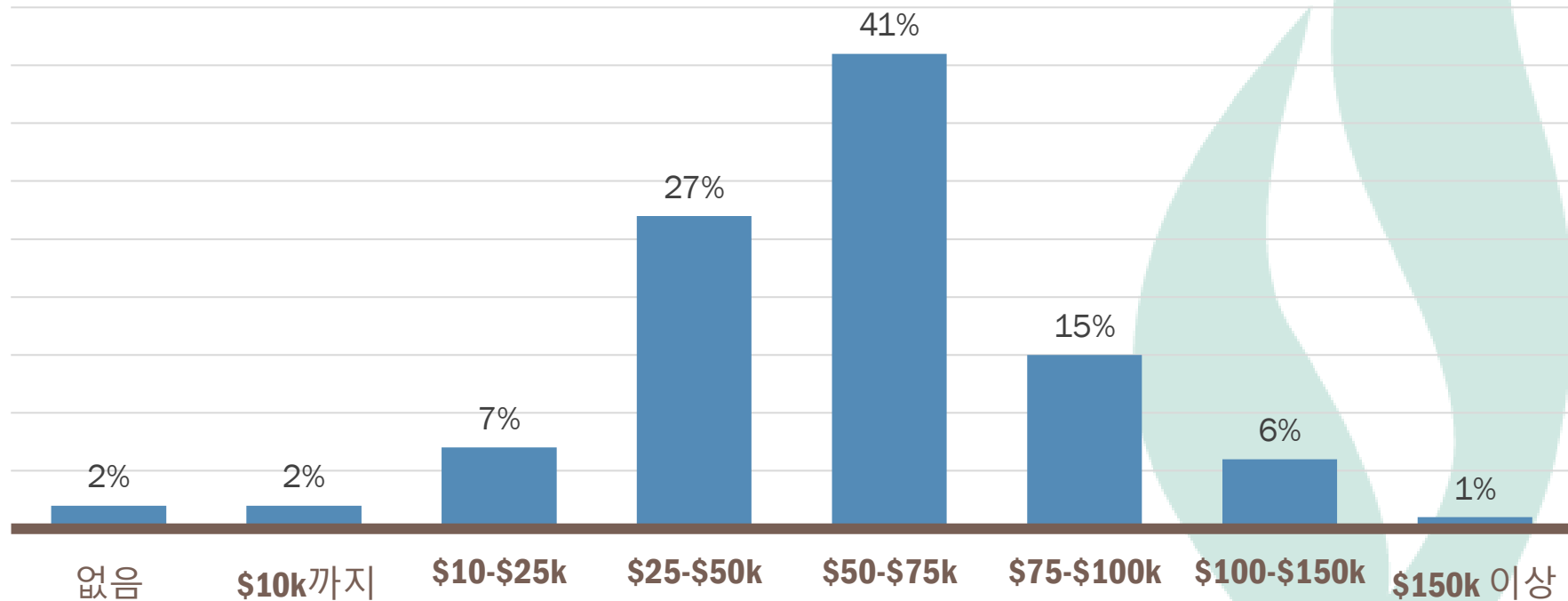
# 목사의 소득

대부분 목사의 소득은 \$50,001에서 \$75,000 사이이다.

보고된 가장 일반적인 목사들의 소득 범위는 \$50,001에서 \$75,000이다. 예상하듯이, 이중직 목사들은 목사, 교구 담당 직원, 또는 기독교 교육자로 봉사하는 목회 활동에서 더 적은 금액을 받는다. 보고된 가장 일반적인 이중직 목사들의 소득 범위는 \$25,001에서 \$50,000이다.

이중직 목회자 중 3%와 목사의 2%는 목사, 교구 담당 직원 혹은 기독교 교육자로서, 교회나 다른 형태의 공동체 예배에 봉사하는 일과 관련한 소득은 없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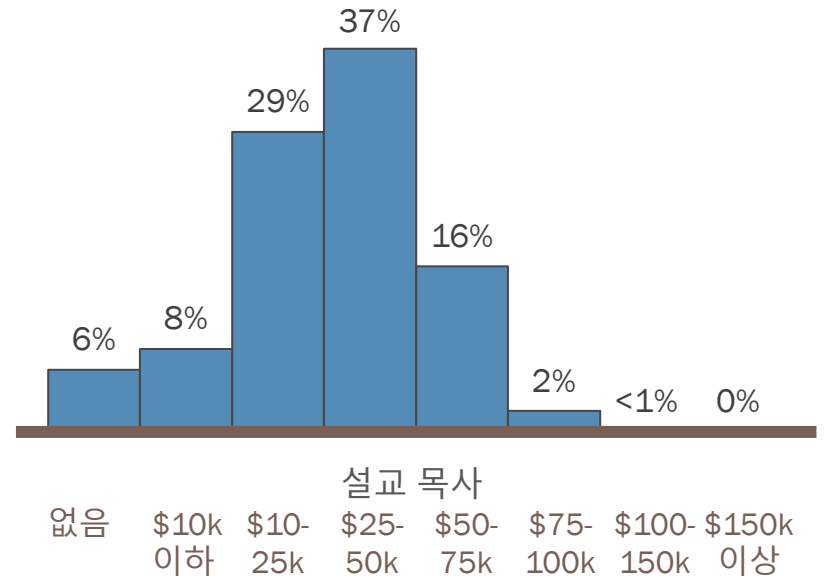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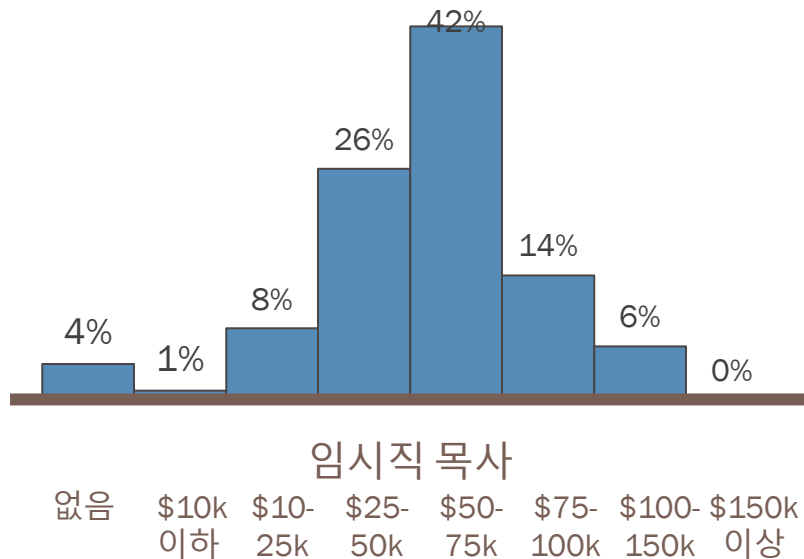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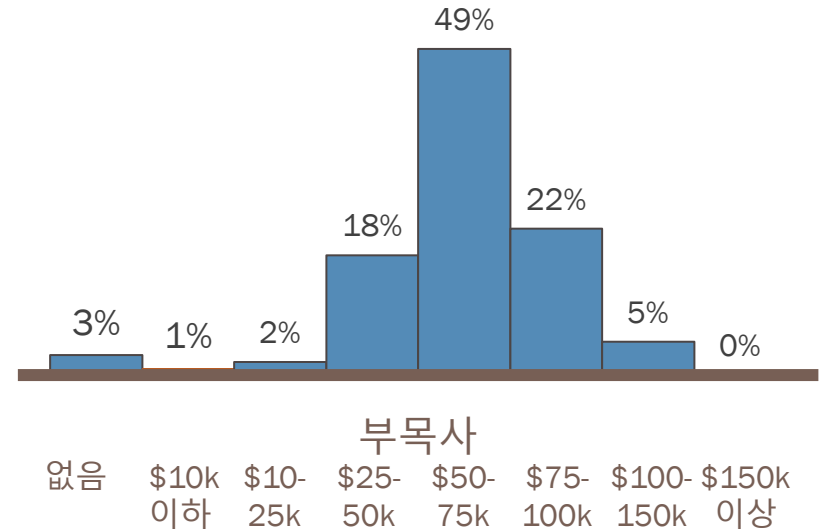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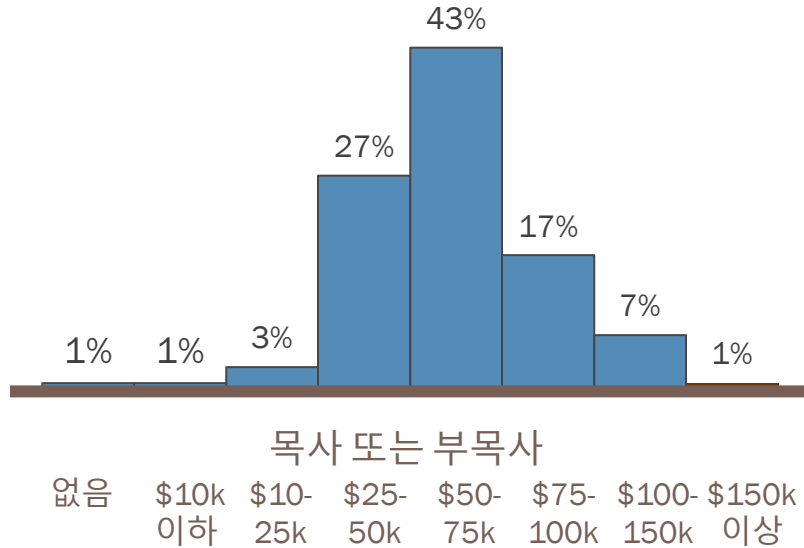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는 목사, 교구 담당 직원, 혹은 기독교 교육자로서 봉직함으로써 보고된 수입일 뿐이다. 다음 페이지는 목사의 소득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다음 페이지는 기타 수입원별 목사의 소득을 보여준다.



N=2,213

# 소명에 따른 목사의 소득

목사의 25%, 부목사의 27%, 임시 목사의 22%, 그리고 설교 목사의 18%는 사역을 통해 \$75,000 이상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다. (N=2,134)





# 목사의 기타 소득원

목사의 가계 내 기타 소득원 중 가장 큰 부분은 배우자의 소득이다.

대부분 \$ 25,001- \$ 50,000 인 배우자 수입을 제외하면, 목회자의 기타 소득원은 연간 \$ 10,000 이하이다. 목회자 설문조사가 많은 사람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에 관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범위 내 각 목회 유형별 소득을 요청했기에, 모든 소득원에서 나오는 가계 총수입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원의 수는 추정할 수 있다. 전 페이지에 표시한 목사 급여를 포함한 가능한 여섯 가지 소득원 중에, 10%는 한 가지, 40%는 두 가지, 32%는 세 가지, 13%는 네 가지, 3%는 다섯 가지, 그리고 1% 미만은 모든 여섯 가지의 소득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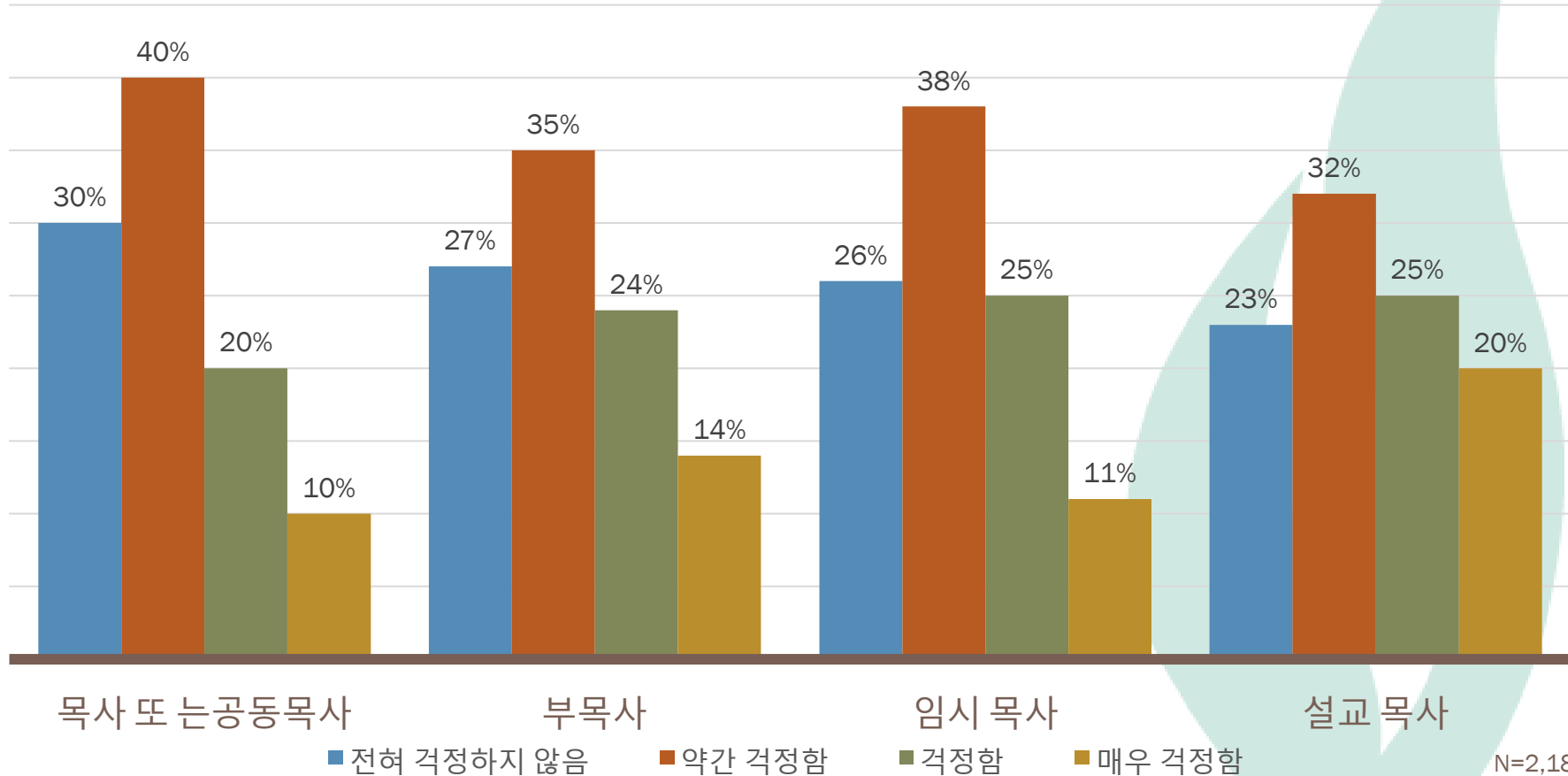
	\$10k 이하	\$10-25k	\$25-50k	\$50-75k	\$75-100k	\$100-150k	이상 \$150k	보고 소득의 비율
목사직, 교구 목사, 또는 기독교 교육자 외의 사역 활동	18%	3%	2%	2%	1%	<1%	-	26%
일반 직업 또는 사업	8%	2%	2%	1%	1%	<1%	<1%	14%
연금, 사회보장연금, 또는 퇴직연금	5%	5%	2%	1%	<1%	<1%	-	13%
배우자의 소득	9%	15%	21%	16%	8%	5%	3%	77%
투자 소득	29%	4%	1%	1%	1%	<1%	<1%	36%

N=2,155

# 목사의 33%는 그들의 소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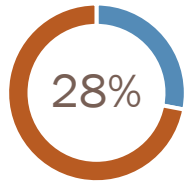
설교 목사가 소득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것이다.

정규직에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소득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목사의 38%, 임시직 목사의 39%, 그리고 설교 목사의 45%에 비해서, 목사와 부목사의 경우, 단 30%만이 소득에 대해 걱정하거나, 매우 걱정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를 배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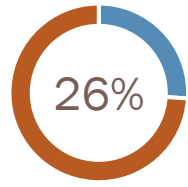


# 목사의 52%는 가계 내 소득이 모든 필요를 충당한다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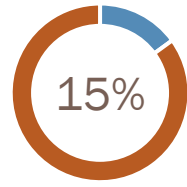
목사 4명 중 1명은 휴가나 큰 돈이 드는 품목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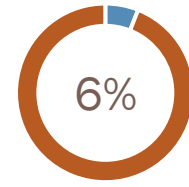
휴가 가기



자동차 또는 주요  
가전제품 교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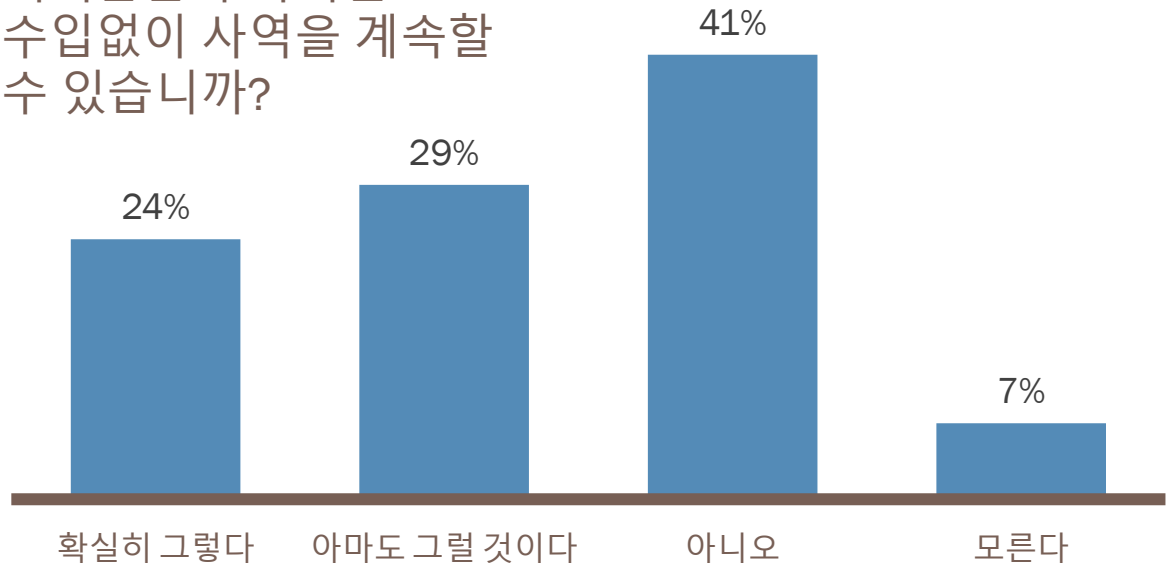
자선 기부하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약 구입하기

일반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는 목사, 은퇴연금이나 사회보장연금을 받거나 투자 소득을 받는 목사는 목사로서 받는 소득 외에 추가적인 가계 소득 없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있는 90%(1,887명) 중에서, 41%는 "아니오"라고 답했고, 추가적 수입 없이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여러분은 추가적인 수입없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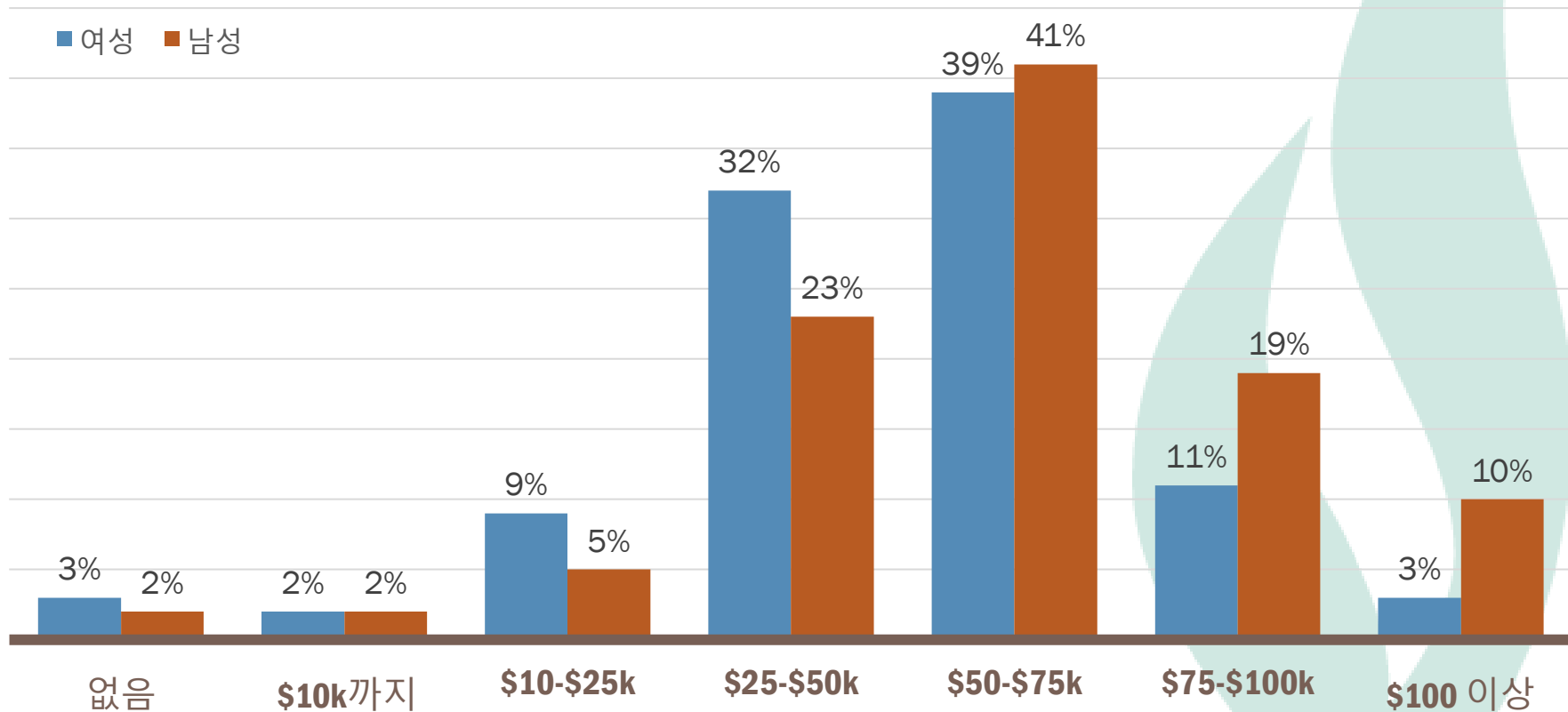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목사의 소득

## 남성 목사는 여성 목사보다 소득이 높다

단 53%의 여성 목사와 비교해서, 남성 목사의 70%는 \$50,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한다. 목사 급여에 있어서 성별 차는 목사 소명의 유형을 비교할 때 여전히 존재한다. 남성은 목사나 공동목사, 부목사, 임시 목사, 그리고 설교 목사 수준에서 여성보다 많이 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가계 내 총소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나, 이종직이나 다수의 일을 가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성별 차이가 없다.



# 특별 사역 목회자

응답자의 15%인 685명이 현재 특별 사역에 봉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86%에 해당하는 587명은 아직 "은퇴"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이들 중 76%인 447명은 목사로 봉직하고 있지도 않다.

이 단원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447명 목사의 보고된 수입, 부채, 재정적 문제, 주택 상황, 은퇴와 관련한 고려사항을 조사한다.

현재 목회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은퇴한 응답자는 별도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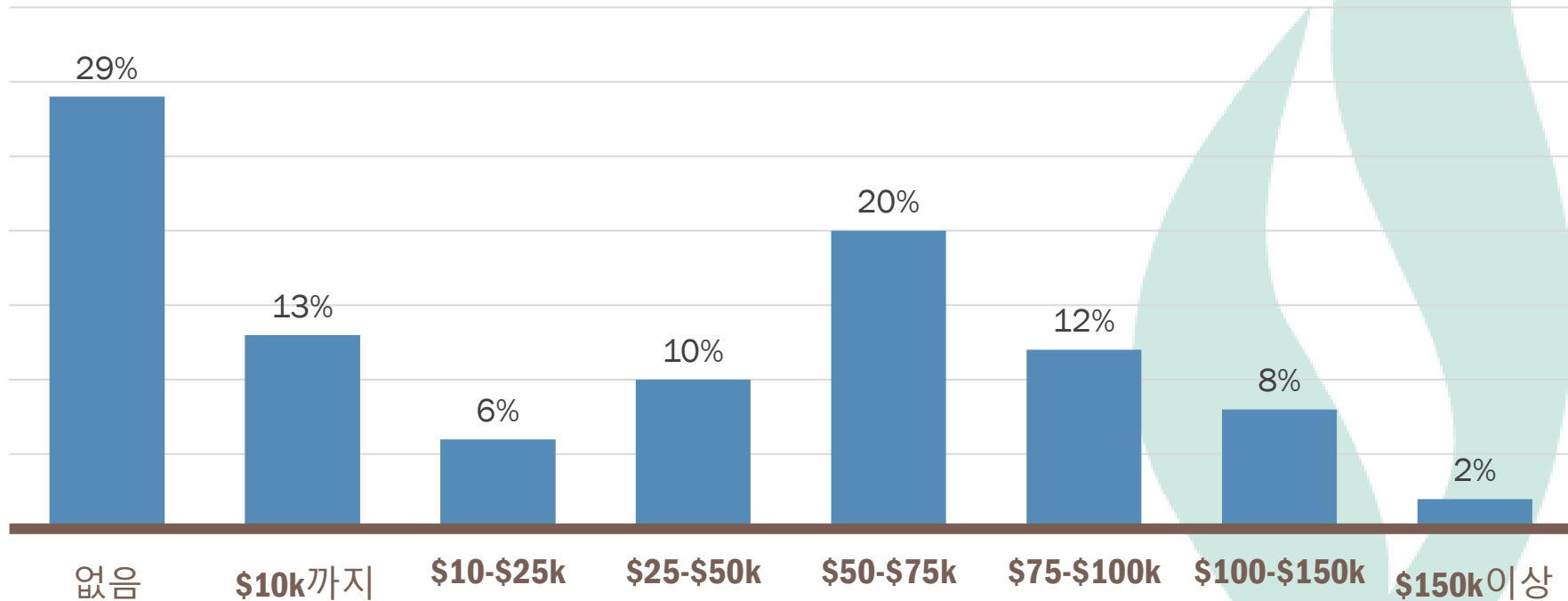
# 특별 사역 목회자의 소득

특별 사역 목회자의 29%는 사역 활동에 대한 수입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분석은 일반 직업도 가지고 있는 특별 사역 목회자들을 포함한다. 이 통계는 비록 은퇴했으나 아직 사역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 사역 목회자 급여에 있어 성별 차이는 없었다. 그렇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특별 사역 목회직에 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17%의 여성 응답자와 12%의 남성 응답자가 특별 사역 목회자이다.

덧붙여, 돈을 버는 특별 사역 목회자는 목사보다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다. 특별 사역 목회자의 45% 만이 \$50,000 이상을 벌고 있는데, 목사의 경우는 64%가 \$50,000 이상을 번다.

다음 페이지는 기타 소득원별로 특별 사역 목회자의 소득을 분류한다.



# 기타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특별 사역 목회자의 소득

특별 사역 목회자의 가계 내 기타 소득원 중 가장 큰 부분은 배우자의 소득이다.

이 분석이 목사로서 일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특별 사역 목회자들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목사로, 교구 목사로, 또는 기독교 교육자로서 봉직하는 데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고하기도 한다. 일부는 교구 목사이거나 기독교 교육자이고, 다른 이들은 지난해 목사로서 봉직했을 수 있으나, 더이상은 아닌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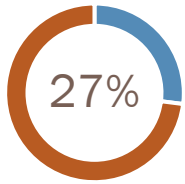
앞 페이지에 표시한 특별 사역 목회자 급여를 포함한 가능한 여섯 가지 소득원 중에, 11%는 한 가지, 35%는 두 가지, 38%는 세 가지, 10%는 네 가지, 3%는 다섯 가지, 그리고 1% 미만은 모든 여섯 가지 소득원에서 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0k 이하	\$10-25k	\$25-50k	\$50-75k	\$75-100k	\$100-150k	이상 \$150k	보고 소득 비율
목사, 교구 목사, 또는 기독교 교육자	9%	4%	6%	11%	8%	4%	1%	43%
일반 직업 또는 사업	9%	2%	5%	5%	3%	1%	-	25%
연금, 사회보장연금 또는 퇴직연금	5%	3%	2%	1%	1%	-	-	12%
배우자의 소득	4%	9%	19%	21%	11%	6%	6%	76%
투자 소득	31%	4%	1%	2%	2%	1%	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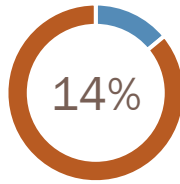
N=330

# 54%의 특별 사역 목회자가 그들의 가계 소득이 모든 필요를 충당한다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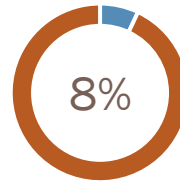
일부 특별 사역 목회자는 휴가나 돈이 많이 드는 품목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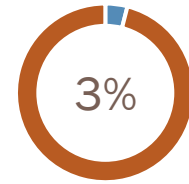
휴가 가기



자동차 또는 주요  
가전제품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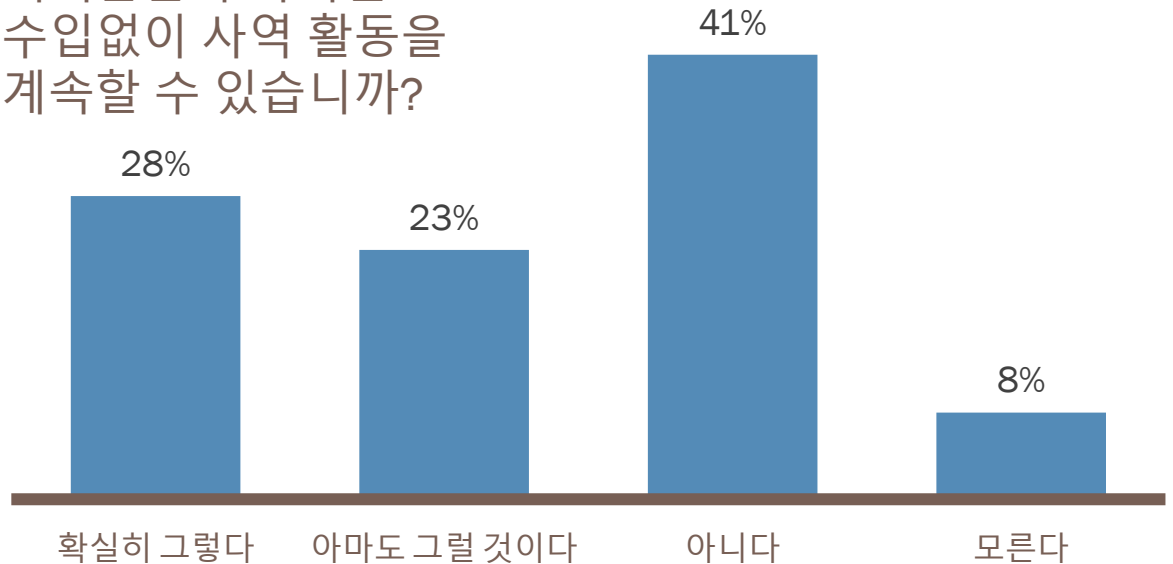
자선 기부하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기

일반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거나, 퇴직연금 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거나, 혹은 투자 소득을 받는 특별 사역 목회자들은 목사로서 받는 소득 외에 추가적인 가계 소득이 없이 그들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주어졌던 74%(329명)중, 41%는 "아니오"라고 말했고, 추가적인 수입없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러분은 추가적인 수입없이 사역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은퇴

1,352 (30%) 명의 응답자는 은퇴자다. 이들 중,  
1,066(79%)명은 실제 일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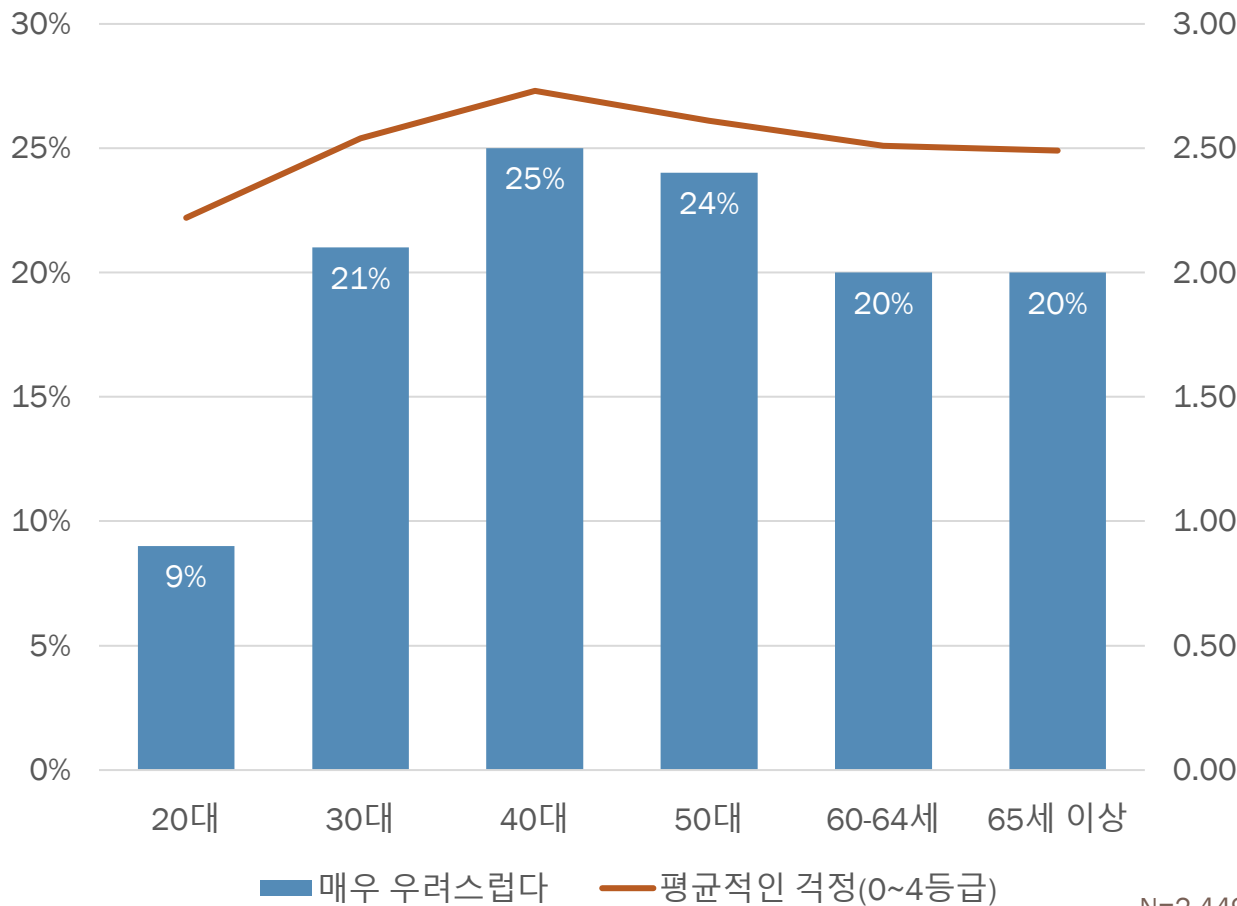
이 단원은 1,352명의 은퇴 목회자들의 보고된 소득,  
부채와 은퇴에 관한 우려를 조사하고,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들의 은퇴 관련 우려에 대해 조사한다.



# 응답자의 48%는 은퇴 준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40대 목회자들에서 나타난다.

여러분은 은퇴 준비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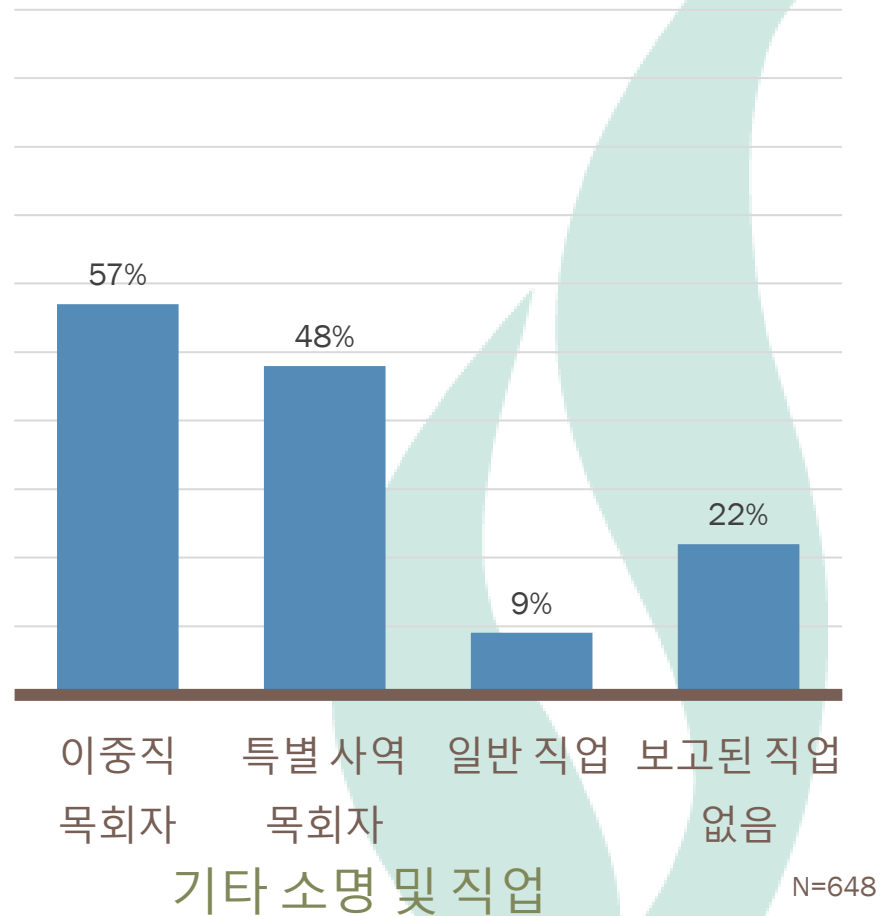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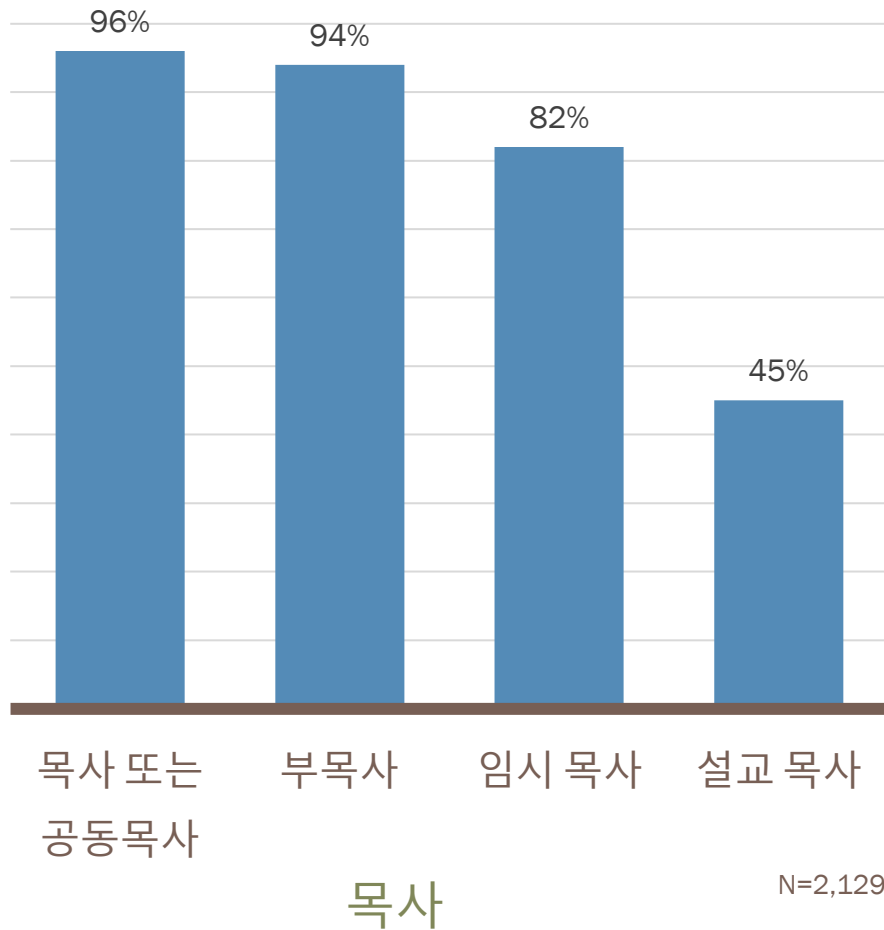


이 도표에는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가 있다. 막대 그래프는 은퇴 준비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응답한 모든 연령 그룹의 비율을 보여준다. 선 그래프는 질문에 대한 평균 응답을 나타내는데, 1(전혀 걱정하지 않는다)에서 4(매우 걱정하고 있다)까지를 포함한 사지선다형 답안에 근거한다. 두 가지 측정에서 40대 목회자들이 가장 큰 우려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이들의 우려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으며, 60대에 이르러서도 5명 중 1명이 은퇴를 준비함에 있어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분석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응답자에 한하여 실행하였다.

N=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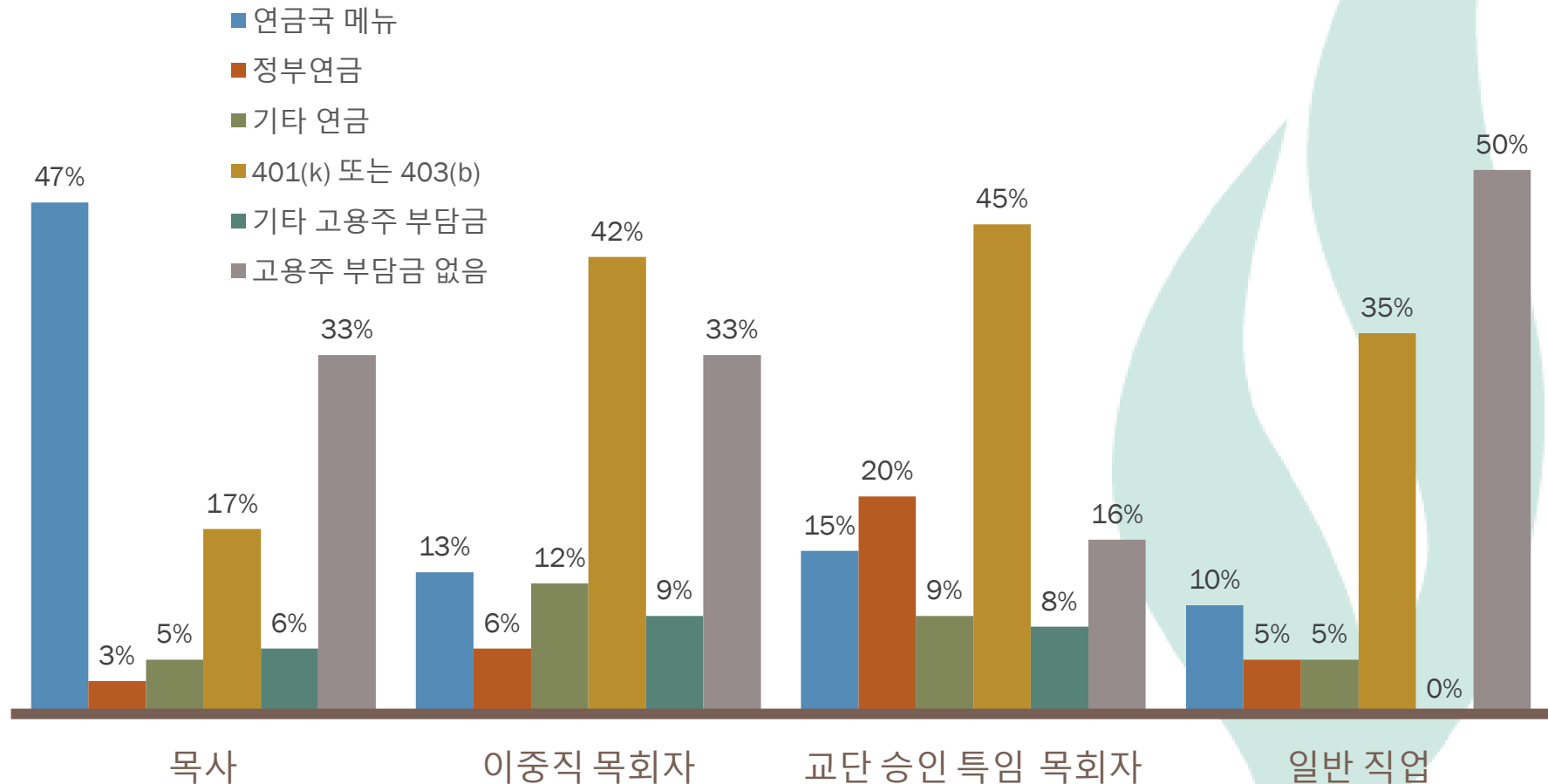
# 87%의 목사가 연금국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설교 목사는 등록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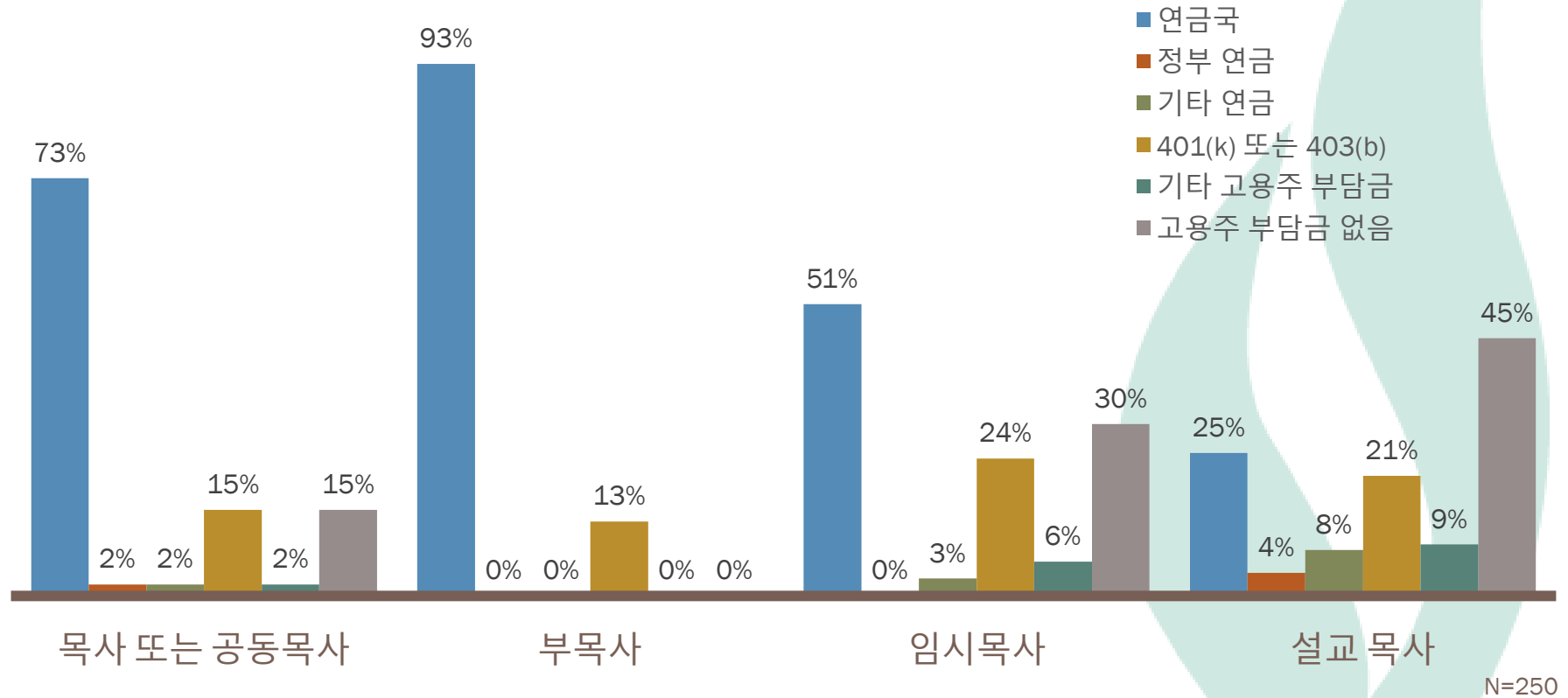
# 특별 사역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보다 고용주 부담금이 있는 은퇴계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 분석은 오직다음의 직위 또는 소명에 있는 개인들 중 은퇴자 등록을 비교한다. 이 방법으로 목회자의 특정한 역할이 퇴직 연금 등록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결과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유형별 목사를 조사했는데 목사의 퇴직 연금 등록이 낮게 보고된 것은 이 질문에 응답한 220명 목사 중 25%가 설교 목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 이 연구에서 부목사는 은퇴 계좌의 고용주 부담금을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분석이 55명의 목사, 또는 공동목사, 15명의 부목사, 33명의 임시 목사, 그리고 147명의 설교 목사를 포함한 단 250명의 응답자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불행히도,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조사할 수 없으며, 이 질문으로 얻은 어떠한 추론도 아주 작은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문이 어떤 잠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분석을 포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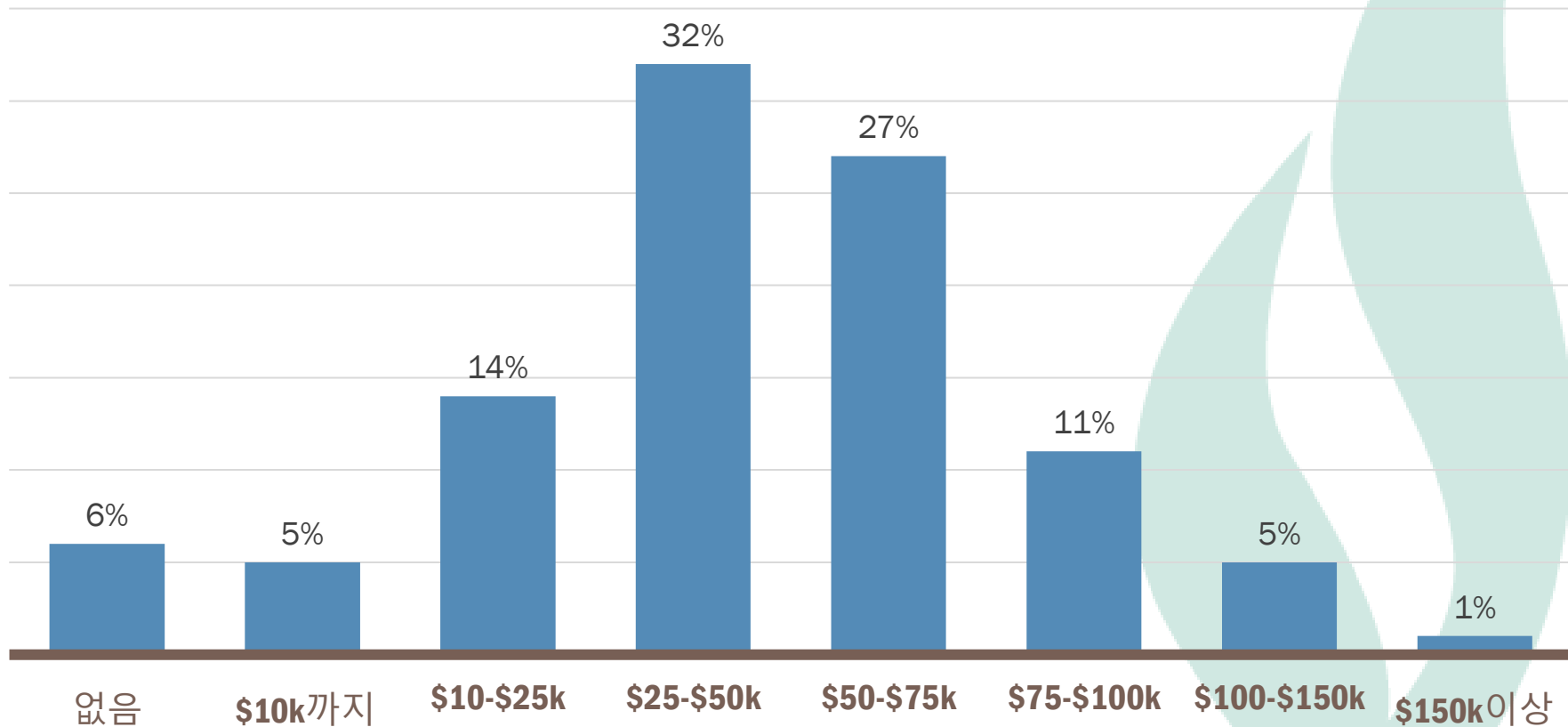


# 은퇴 소득

명예 퇴직자의 99%는 연금과 사회보장연금, 또는 퇴직자 소득을 받는다.

이 분석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하지 않는 은퇴자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는 명예 은퇴자의 21%에 해당한다. 일하는 은퇴자는 일하지 않는 은퇴자의 소득보다 더 적게 버는데, 일하지 않는 은퇴자의 45%와 일하는 은퇴자의 36%가 은퇴 소득으로 \$50,000 이상 번다고 보고한다. 추가적으로, 일하는 은퇴자의 거의 3분의 1은 은퇴 소득으로 \$25,000 이하를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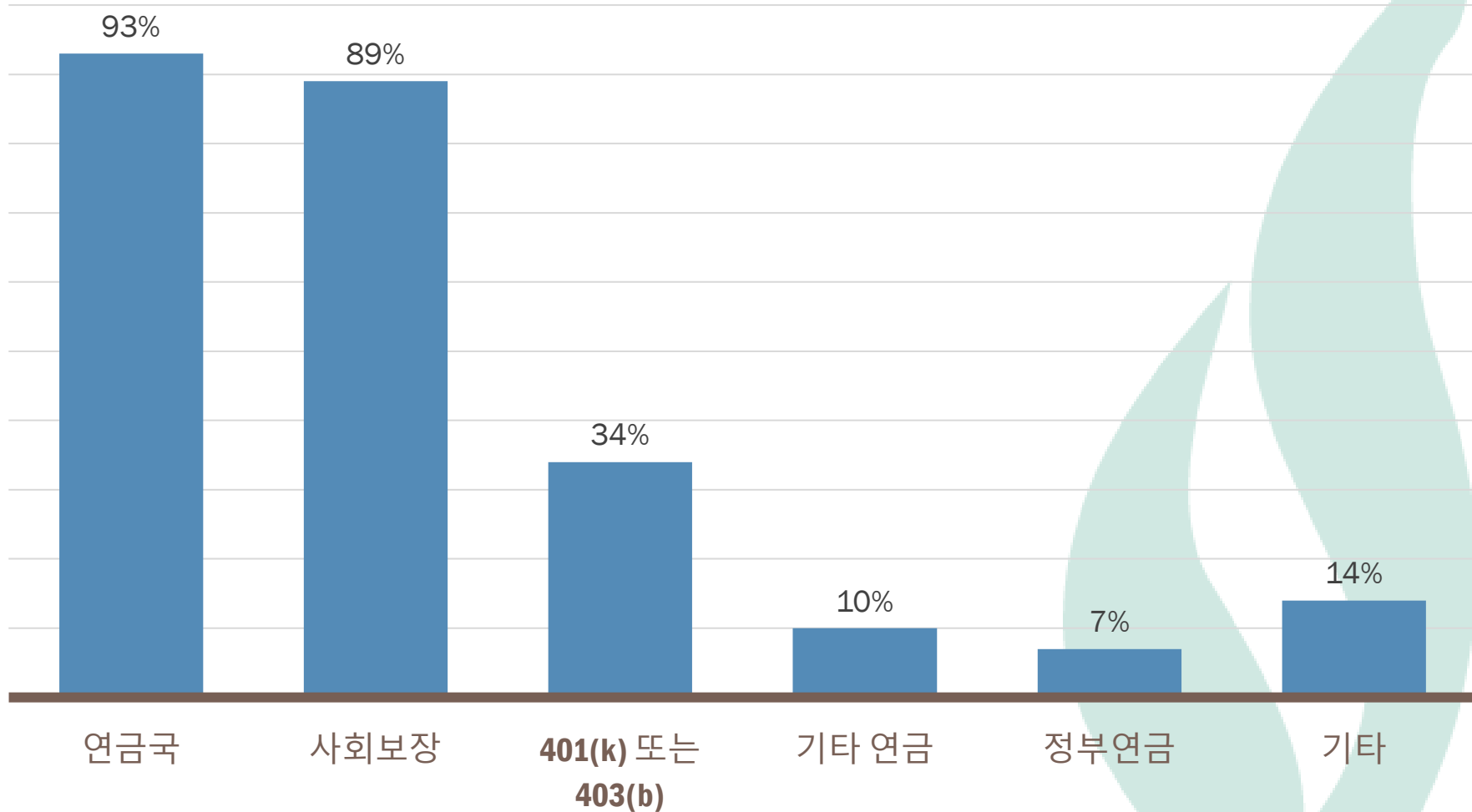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는 은퇴소득의 유형을 분류한다.



# 은퇴 소득원

명예퇴직자의 99%는 연금과 사회보장연금, 또는 퇴직자 소득을 받는다.

다음 페이지는 명예퇴직자의 기타 소득원을 분류한다.



# 기타 은퇴 소득원

명예퇴직 목회자의 가계 내 다른 소득원 중 가장 큰 부분은 배우자의 소득이다.

설문조사가 전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묻기 때문에 여기 보고된 소득의 일부는 작년 동안 퇴직한 사람들의 수입이고 전에 유지했던 직위나 소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앞 페이지에 표시한 목사 급여를 포함한 가능한 여섯 가지 소득원 중에, 7%는 한 가지, 22%는 두 가지, 35%는 세 가지, 23%는 네 가지, 10%는 다섯 가지, 그리고 2%는 모든 여섯 가지 소득원에서 수입을 얻는다고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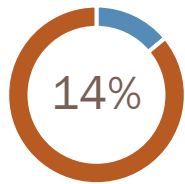
	\$10k 이하	\$10-25k	\$25-50k	\$50-75k	\$75-100k	\$100-150k	이상 \$150k	보고 소득 비율
목사, 교구 목사, 또는 기독교 교육자	11%	7%	12%	9%	5%	2%	1%	47%
목사직 외 교구 목사, 또는 기독교 교육자 등의 사역활동	16%	5%	3%	2%	2%	1%	<1%	29%
일반 직업 또는 사업	7%	2%	2%	3%	2%	<1%	1%	17%
배우자의 소득	11%	17%	19%	10%	4%	2%	2%	61%
투자 소득	39%	16%	7%	3%	2%	1%	1%	69%

N=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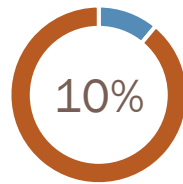


# 73%의 명예퇴직자는 그들의 가계 소득이 모든 필요를 충당하는데 충분하다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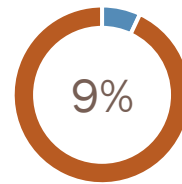
일부 은퇴한 개인들에게 휴가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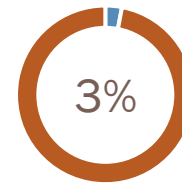
휴가 가기



자동차나 주요 가전제품 교체하기



자선 기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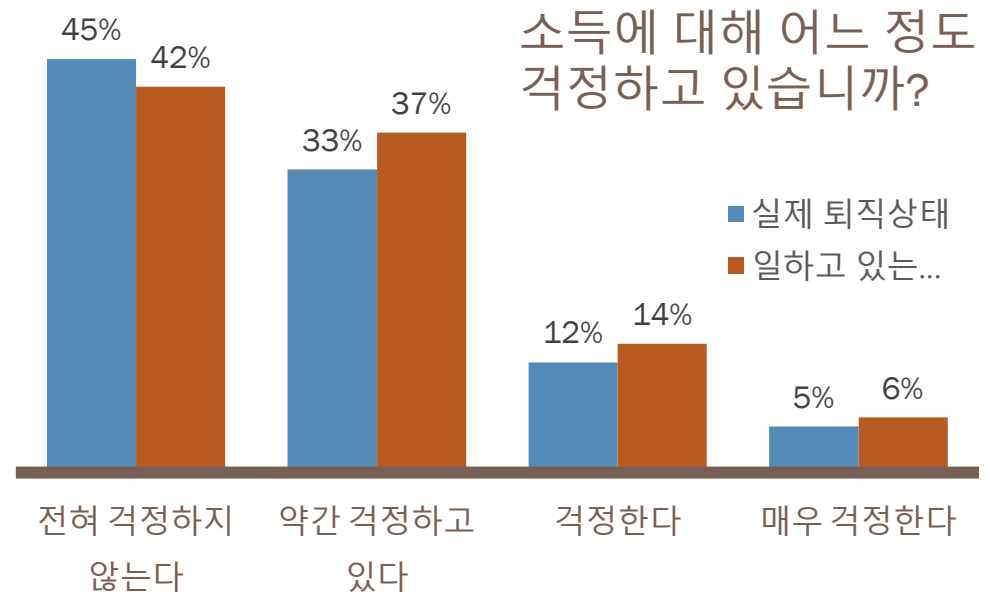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약 구입하기

일을 하고 있는 은퇴자의 6%만이 소득의 제약으로 인해 유급 근로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명예 퇴직자보다 소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능성이 타당하지만, 오히려 다른 면에서는 퇴직자가 2차 근로 소득을 통해 이러한 걱정을 덜게 될 것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퇴자는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고, 은퇴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있어서 나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사했다. 일하고 있는 퇴직자들 사이에 나이는 소득과 관련한 문제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목회자들이 나이가 많은 이들보다 더 걱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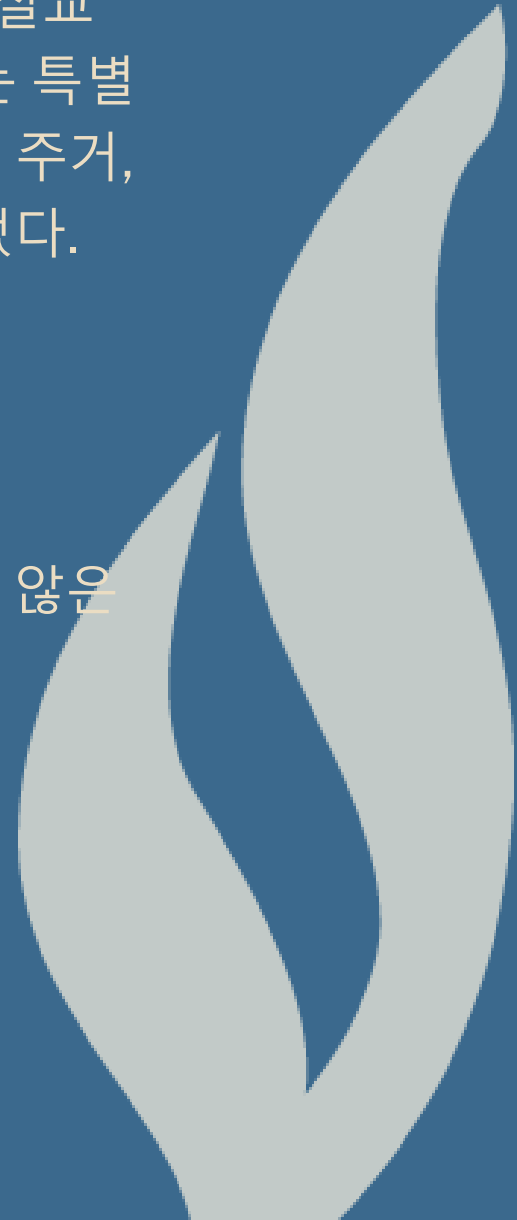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 부채

목사의 유형(공동목사, 부목사, 임시 목사, 또는 설교 목사)이나 목회자 유형(목사, 이종직 목회자 또는 특별 사역 목회자)에 상관없이, 목회자의 역할에 따른 주거, 부채, 재정 문제에 대한 응답에는 큰 편차가 없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부분에서 이러한 주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곳에서만 중요한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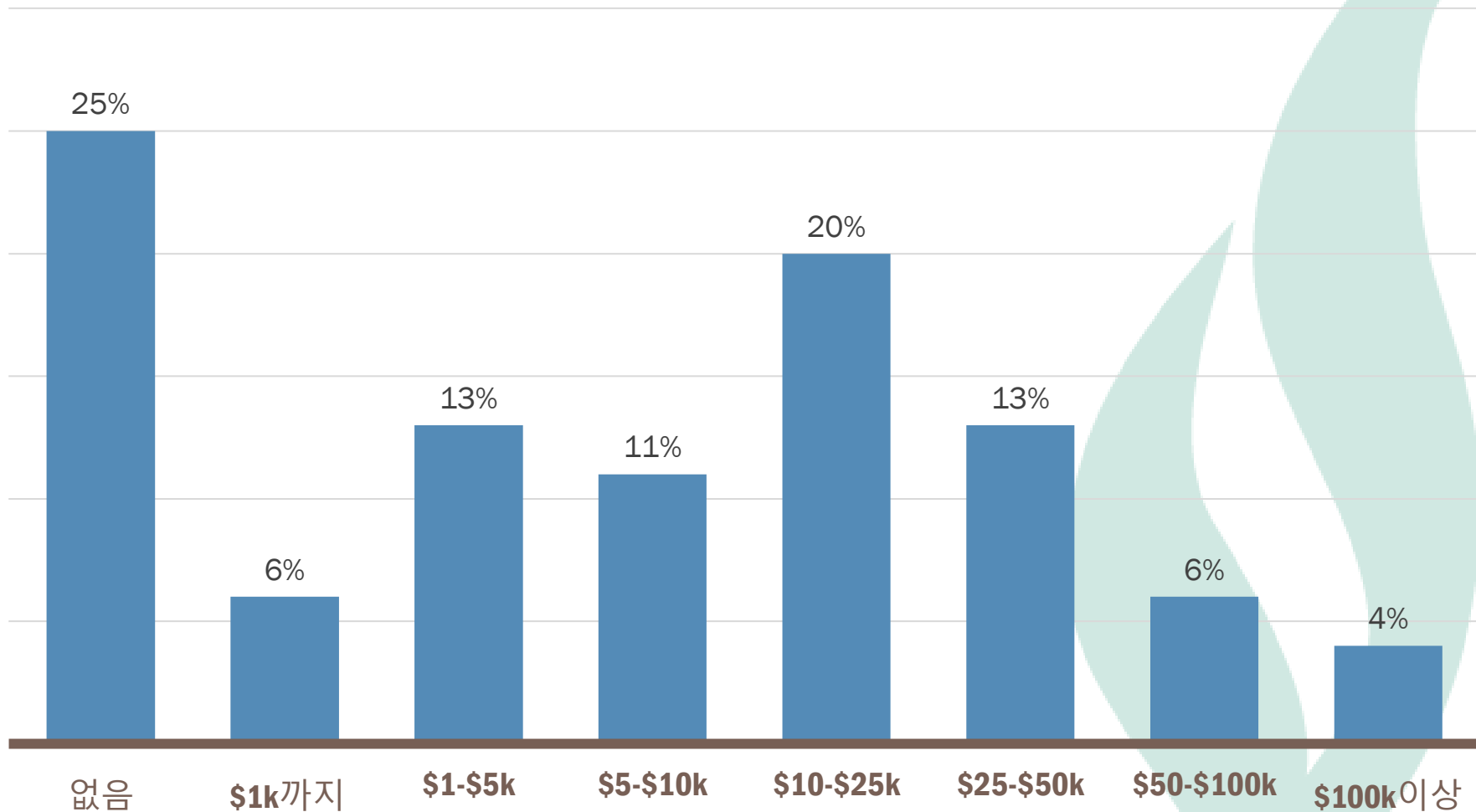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데이터는 은퇴하지 않은 목회자만을 조사한다.



# 소비자 부채

퇴직하지 않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75%는 현재 소비자 부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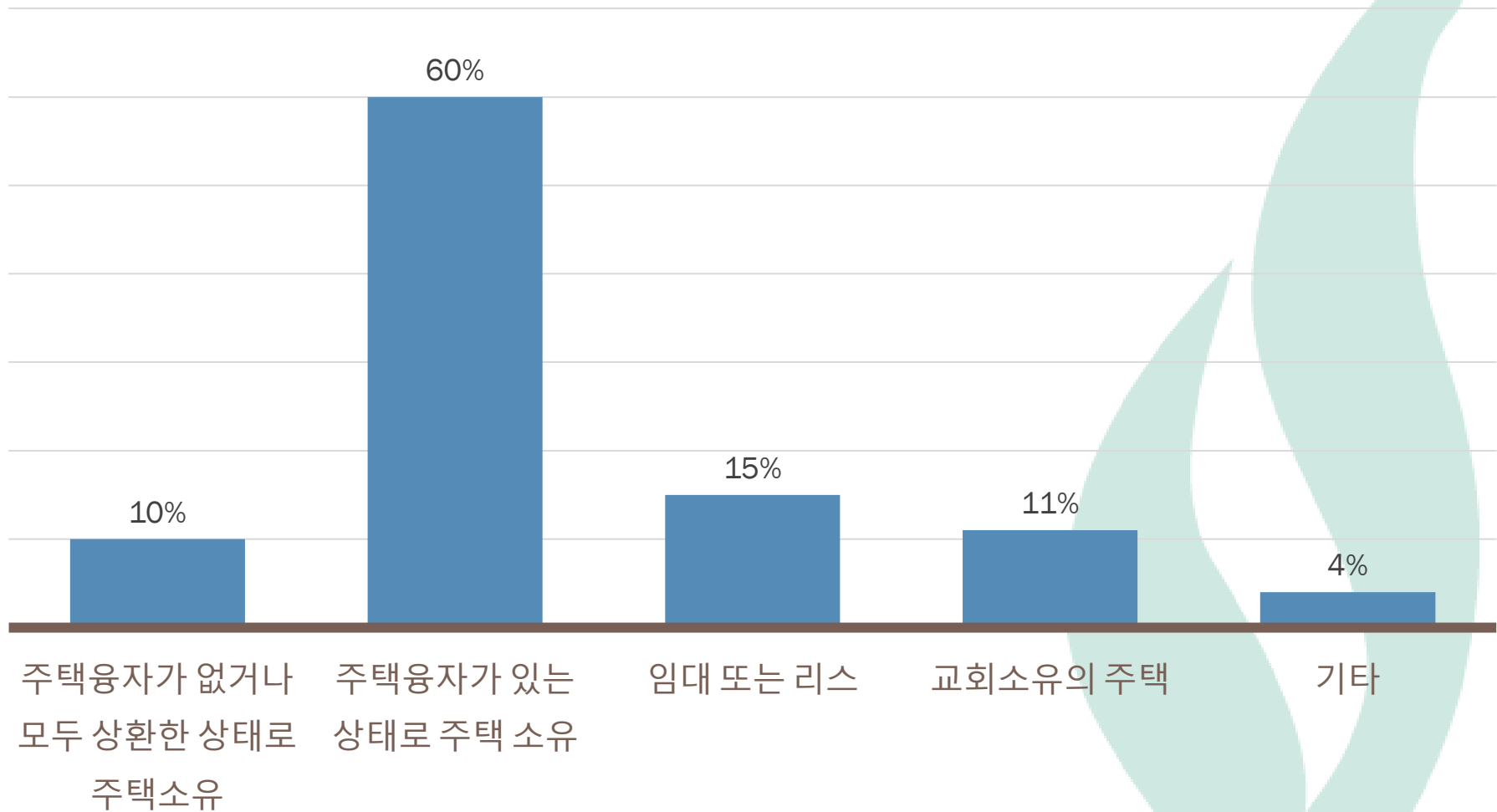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금과 개인대출금을 포함한 총가계 부채가 얼마인지 질문했다. 그러나 주택 용자나 학자금 용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4명 중 3명이 일정 수준의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10%의 응답자는 주택과 학자금 용자금을 제외하고도 \$50,000 이상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했다.



# 주택

70%의 말씀과 성례전 목회자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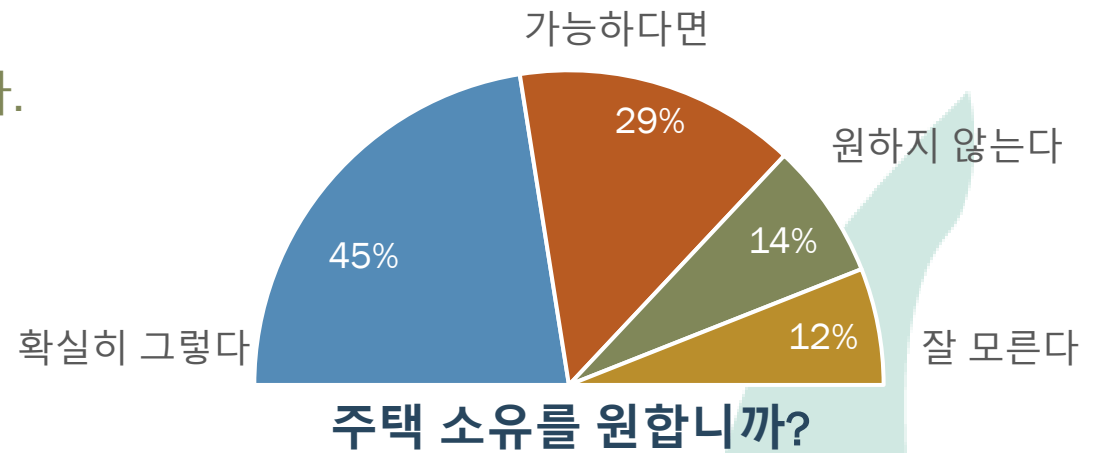
15%의 목회자만이 주택을 임대 또는 리스한다. 12%의 말씀과 성례전 목사들은 수입의 제약 때문에 주택소유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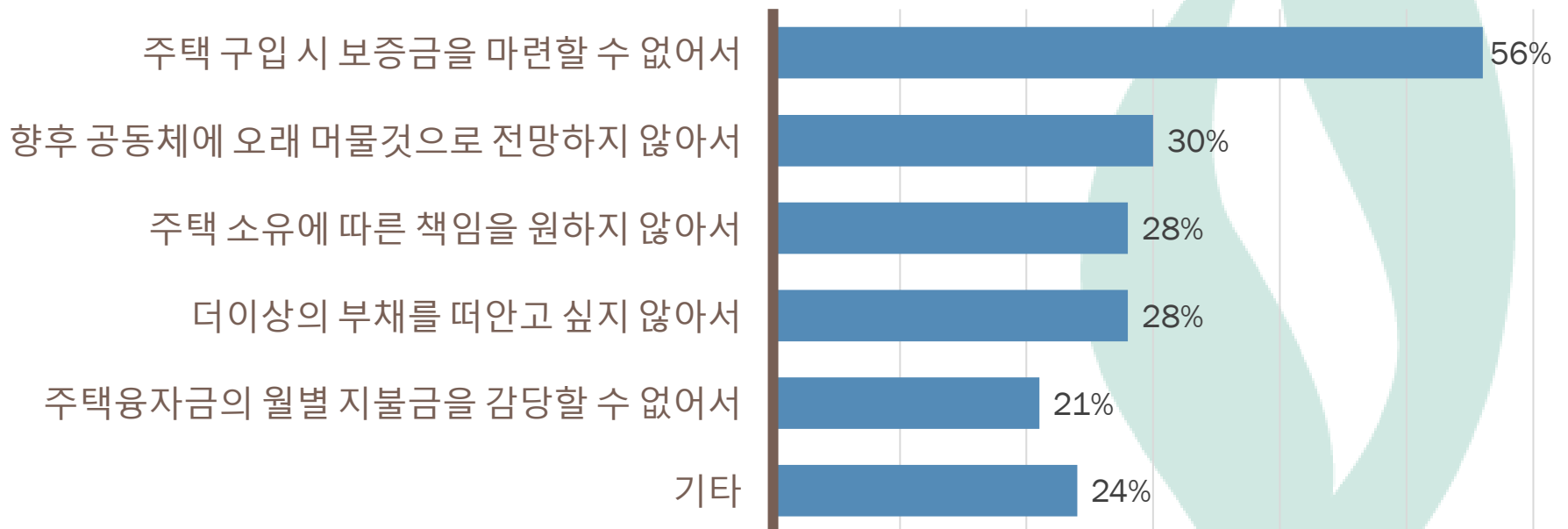
# 무주택 사유

집을 소유하지 않는 45%의 목회자는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고 말한다.

갖고 싶으나 소유한 주택이 없다고 말한 목회자들에게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주택 구입 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목회자들은 이런 공동체에 향후 오래 머물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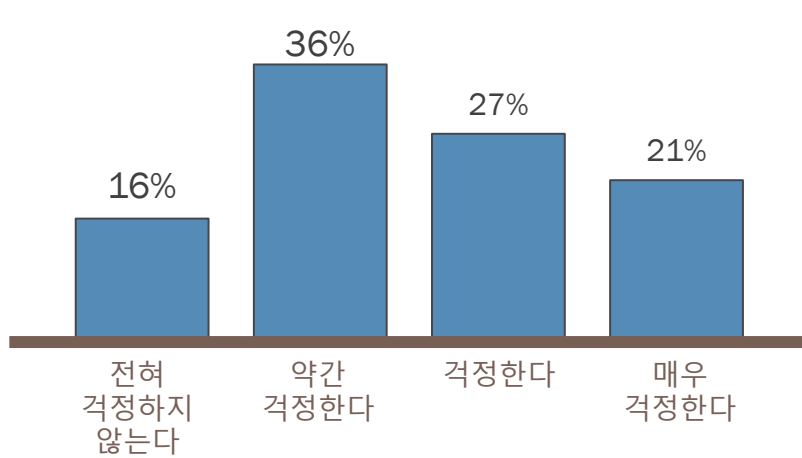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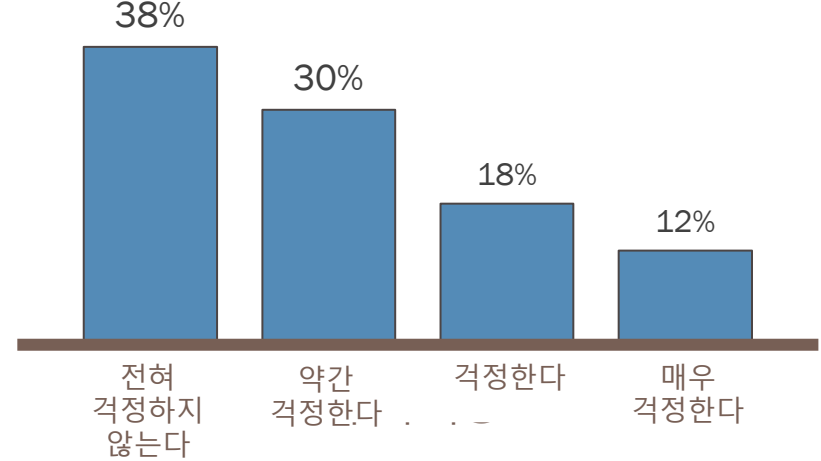
# 재정 문제

여기 열거한 네 가지 걱정 중에 목회자들은 은퇴계획을 가장 크게 걱정하며, 주택 비용에 대한 걱정은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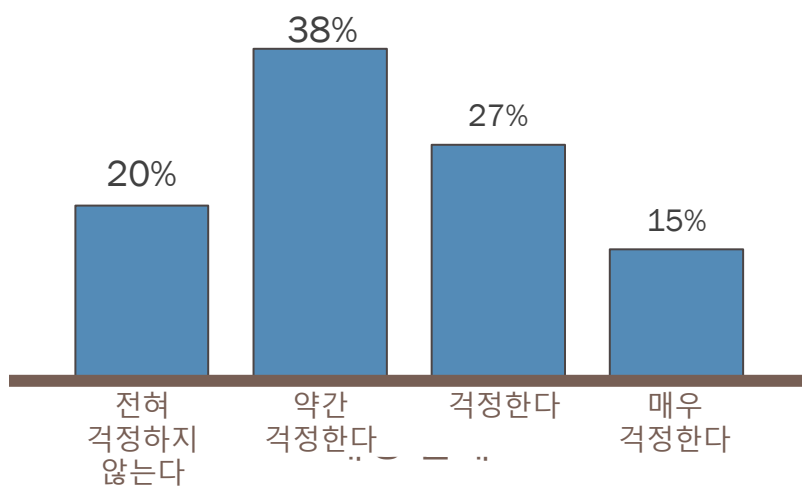
### 은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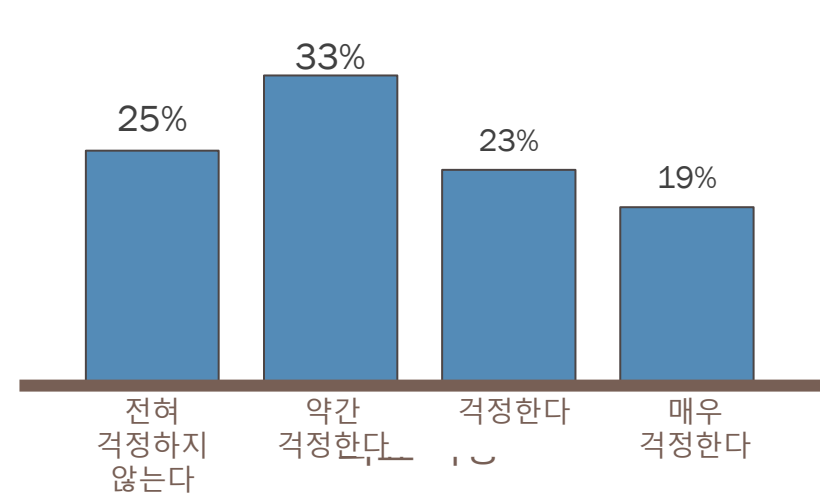
### 주택 비용



### 재정 설계



### 의료 비용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소득이 필요를 충족하고 부채를 갚는데 충분하다고 보고한다.
  - 52%의 목사
  - 54%의 특별 사역 목회자
  - 73%의 은퇴한 목회자
- 사역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은퇴 후에 소득은 달라지게 된다.
  - 56%의 대부분의 목사는 \$50,000에서 \$100,000을 받고, 단 7%만이 \$100,000 이상을 받는다.
  - 특별 사역 목회자의 29%는 소득이 없고, 급여가 있는 이들의 경우, 단 42%만이 \$50,000 이상을 받는다.
  - 은퇴한 목회자의 32%는 \$25,000에서 \$50,000까지 받는다.(연금국과 사회보장연금)
- 대부분의 목회자는 주택소유주이다.
  - 70%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10%는 주택용자가 없다.
- 집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 중, 45%는 주택 소유를 원하나 많은 이들이 구입 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 대부분의 퇴직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주택용자와 학자금용자 외에 소비자 부채를 가지고 있다.
  - 25%의 목회자만이 소비자 부채가 없고, 1%는 \$1,000 미만의 부채가 있다.
- 87%의 목사가 연금국에 등록되어 있다.
- 많은 목사들이 은퇴 계좌에 고용주 부담금이 있다.
  - 그러나 33%는 고용주 부담금이 없다.
-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는 은퇴를 걱정한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공과금을 내고,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을 사는데 용케도 스스로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듯 보이는 반면, 다음 페이지에서 깊게 살펴봐야 하는 세가지 우려가 있다. 이는 주택소유권, 은퇴 고용주 부담금, 그리고 소비자 부채이다.



# 주택 소유

재정상태에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의 45%는 주택 소유주가 되기를 원한다.

본 연구에서, 12%의 응답자들은 소득의 제약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고 보고한다. 그들 중 56%는 주택 구입 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알 수 있다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 보유 기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익명이어서 이들 목회자들이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 사는지, 낮은 곳에 사는지 여부나 주택 매입이 가능한 지역에 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주택 소유가 목표임은 알고 있다.

11%는 목사관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경력 전반에 걸쳐 목사관에서 사는 목회자들은 생애 첫 주택구입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어떤 목사는 40년 사역 후, 첫 집을 사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목회를 하지 않는 또래들이 했던 것처럼, 필요에 맞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주택 자산을 마련해 놓지 못해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낀다.

주택 소유는 은퇴 시 재정 안정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미국 장로교는 목사들의 주택소유를 돕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택 소유와 목회자들에 관해 묻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2021년 2월 미국장로교 지도자 페이스북의 개인 간 네트워크 대화에서도 역시 다루었던 문제이다.

# 퇴직 부담금

33%의 목사와 이종직 목회자들은 고용주 퇴직 부담금이 없다고 보고한다.

일반 직업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나쁜데, 50%가 고용주 퇴직 부담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퇴직 부담금에 관한 질문은 다양한 응답을 가능하게 한다: 연금국, 4013(b), 기타 퇴직 프로그램, 또는 부담금 없음. 그러나 3분의 1이 고용주 부담금이 없다고 보고한다. 없음. 나이는 요인이 아니다, 즉 고용주 부담금의 부족은 어느 연령의 그룹에도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은퇴 연령에 이르렀을 때 이 사실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33%의 목회자들은 추가적인 소득없이 은퇴할 수 있을까? 퇴직 부담금을 받기 위해, 회중이나 커리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가?

목사로 봉직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퇴직 프로그램에도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목사의 은퇴 계좌에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고용주 은퇴 부담금( financial match)은 선택인가? 노회나 중간 공의회 자산 매각이 퇴직금의 보충원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나리오는 작은 교회가 전임 목사를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전업 급여와 복지 혜택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다.

# 부채

대부분의 퇴직하지 않은 75%의 목회자들은 주택 용자와 학자금 대출 외 소비자 부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마켓워치와 너드월렛은 평균적인 미국 가계는 주택용자와 학자금용자를 포함해 \$137,729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택용자와 학자금용자를 *제외한* 소비자 부채에 관해 목회자들에게 물었다. 23%의 퇴직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25,000 이상을, 10%는 \$50,000 이상의 소비자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6,124의 미국인들의 평균 신용카드/회전 부채 및 \$27,649의 자동차 대출금에 비교되는 금액이다. \$50,000 이상의 소비자 부채를 갖고 있는 10%는 주택 및 학자금 용자를 제외하고 *미국인 평균보다 더 많은 빚을 갖고 있다.*

우리는 교육관련 부채가 은행에서 재용자되었는지 신용카드로 이체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놀랄 만한 발견은 활동하는 목회자의 10%가 \$50,000 이상의 소비자 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6%는 \$50,000 과 \$100,000 사이 부채가 있고, 나머지 4%는 \$100,000 의 빚이 있다(다시 말하지만 이는 주택 및 학자금 용자는 제외한 금액이다). 이와 같이 응답한 내용이 실수라고 믿고 싶을 정도이다. 조사의 익명성 관계로 개인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는 정확하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10%는 소득이 생활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한 11%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곧 연소득이 부채 수준과 같거나 더 낮은 경우, \$50,000 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느냐가 주요 문제임을 뜻한다. 2019년 너드월렛에 따르면, 10%의 미국인들은 평균 부채를 갚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9%는 결코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nerdwallet.com/blog/household-credit-card-debt-study-2019/>

# 결론

본 보고서는 목사의 재정적인 문제인 부채, 소득수준, 소득원, 은퇴 준비, 그리고 자택 소유 등을 깊이 살펴보았다. 학자금 용자는 별도 보고서의 주제로 다루기로 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모든 재정적인 시나리오를 다 다루지는 않았다. 어차피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설문조사가 대면 인터뷰였다면 각 개인에 해당되는 질문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왔을 것이다.

나이, 성별과 재정적 봉사 했수에 관한 교점과 영향에 관련한 일부 질문은 의미 있는 데이터의 해석을 하기엔 응답이 충분치 못했기에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리서치 서비스는 미국장로교가 설문조사, 주요 대상 및 인터뷰, 인구통계적 분석, 프로그램 평가 등을 이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사회학, 공공정책학, 경제학 등의 배경을 지닌 사회과학자들이다. 우리는 미국장로교 교회, 노회, 대회, 총회 기관 및 관련 조직을 섬기고 있다. 리서치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그룹의 사역의 한 부분이다.

질문이 있거나 이 보고서의 사본을 원할 경우, 다음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502-569-5077 또는 [research@pcusa.org](mailto:research@pcusa.org).



**RESEARCH  
SERVICES**